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3-24)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은성교회를 위해 피 같은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동행해 주신 은혜를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올해로 은성(군인)교회에서 만 20년째 사역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나온 모든 시간을 돌이켜 볼 때, 마른 막대만도 못한 저를 통하여 다음세대 선교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군선교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해 오셨음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등 일반교회와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한 황무지 같은 군선교 현장이지만, 지난 20년 동안 은성교회에 나타난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로 인해 용기와 힘을 얻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은성교회에서는 꿈같은 기적의 역사가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조국 교회의 미래가 걸려 있는 군선교 현장이 너무나 중요한 사역의 현장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부족한 저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거의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4년에 전역한 강준수라는 청년이 보내온 문자 편지입니다.

“목사님! 잘 지내시죠?! 2025년 한 해가 벌써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번 한 해도 건강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20년째 군인교회 목회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략)
더 많은 용사들이 구원의 손길 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군대 와서 목사님 덕분에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이하생략)

준수는 전역 후에도 복학을 미루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정 금액을 은성교회를 위해 후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전역한 지현후라는 청년이 보내온 문자 편지입니다.

“감사하고 존경하는 우리 권오철 목사님!

작년 3월, 이병 계급장을 붙이고 첫 찬양 인도를 했던 제가 이렇게 무사히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시작되었던 찬양팀의 인원이 점점 더 많아지고, 풍성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의 삶을 보며 진심으로 존경했고 감탄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목사님의 모습 :)

군생활을 하며 저는 목사님을 통해 많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은성교회와 군생활은 저를 진정한 남자로, 어른으로, 참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었습니다. (중략) 저는 군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났습니다. 저의 삶이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음성을 좇아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철 목사님!

연락드리고, 식사도 하며 인생을 나누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성교회를 위해 헌금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달에 한 번씩 총 3달 간 헌금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이하생략)

현후는 전역 후 100만 원의 선교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은성교회는 싱어, 드러머, 일렉기타, 바이올린 등으로 중무장한 12명의 찬양팀이 예배 1시간 전부터 교회에 나와 기도와 연습 후 뜨겁게 찬양 인도를 하며, 성령 충만한 예배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고대 경제학과를 다니다가 군대 와서 처음 교회에 나온 박민석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등병 때부터 상병인 지금까지 찬양팀 멤버로 싱어와

제2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군대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한 관계로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 1시간 30분 전(오전 8시 30분)부터 교회에 나와 예배 찬송곡을 연습하고 반주에 임할 정도로 기특하고 기이할 정도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교회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 바로 군선교의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광야 같은 군선교 현장에 외롭게 홀로 서 있는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런 청년들은 저의 기쁨이고 보람이며 자랑이고 면류관입니다. 군에 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성장하며, 다음세대 조국교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청년들을 지켜보는 저는 군인교회 목사가 된 것이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며 욕심부릴 것도 드러낼 것도 없는 군선교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축복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신명기 33:29)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심각할 정도로 다음세대 신앙 전수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점점 더 텅 비어 가고,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교회 이탈 현상도 눈에 띄게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군선교는 여전히 전략적으로 다음세대 선교의 중요한 현장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여 년간 군선교라는 외길을 걸어온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국 교회에서 군선교는 ‘황금어장’이라는 거창한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외면받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에 7,000인을 남겨 두셨던 것처럼 군선교를 위해서도 그와 같이 특별한 교회들과 뜻있는 성도들을 붙여 주셔서 군선교 현장을 돕게 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은성교회도 지금까지 폐지를 주워 생활하시는 할머니 권사님의 희생과 헌신등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을 통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저의 아내도 아픈 몸을 이끌고 때로는 투잡까지 하며 군인교회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도 그렇고, 지금까지 저를 도와 주었던 모든 분들에게 늘 죄인된 심정이고 빚진자의 심정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은성교회와 함께했던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군선교의 의인들임을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20여 년을 의지할 것 없는 광야 같은 군선교 현장에 홀로 서서 발만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거룩한 사역이 그러하듯이 군선교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사역임을 그동안의 제 경험으로 생생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야할 사명의 길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잘한 것보다는 잘못된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분한 눈길과 사랑을 주지 못한 것도 후회가 됩니다. 늘 제 마음 속에 옥죄는 생각 하나는 돈 없는 가난한 집 애비같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식들을 못 먹이고 못 입히고 못 가르친 것만 같아 마음이 늘 무겁기만 합니다.

해마다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며 일해 왔지만 연말만 다가오면 파도같이 밀려오는 아쉬움과 후회스러움에 마음을 가누기 힘듭니다. 때때로 제 가슴 속에 셋별같이 떠올라 이런 저를 질책하고 경책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정현종·시인, 1939-)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중략)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더 열심을 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반성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25:21) 라는 칭찬 한마디 들을 수만 있다면 저는 더 이상 아무 것도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새해에도 외롭고 힘든 군선교를 위해 격려와 기도, 관심과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며 행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온 영혼과 온 마음으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25. 12. 15

은성교회, 권오철 목사 드림